

‘N1 de N2’ 구문의 유형 분석: 술어 N1과 주어 N2를 중심으로*

유 은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은정(2013), ‘N1 de N2’ 구문의 유형 분석: 술어 N1과 주어 N2를 중심으로.

초 록 본 연구는 ‘N1 de N2’ 구조로 나타나는 스페인어 명사 구문에 대한 연구로, 특별히 N1과 N2 사이에 주어-술어 관계가 형성되는 구문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어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요소로서 전치사 ‘de’가 사용되어 주로 ‘소유’ 혹은 ‘부가적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나 ‘N1 de N2’의 구조가 단순한 소유나 수식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N1 de N2’구조에서 N2가 주어, N1이 술어로 기능하여 의미적으로 주어-술어관계를 형성하는 품질 명사구(qualitative nominals) 구문을 다룬다.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품질 명사구 구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학습자들이 이 구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을 분류하여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명사구를 이끄는 관사에 따라 크게 부정관사가 이끄는 품질 명사구 구문과 정관사가 이끄는 품질 명사구 구문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술어 N1에 나타나는 요소가 명사인 경우와 형용사인 경우로 각각 세분하여 유형을 분류한다. 그리고 각 유형의 의미·구조적 특징을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핵심어 ‘N1 de N2’ 구조, 품질 명사 구문, 주어-술어관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5C-2011-2-A00940).

I. 서론

본 연구는 두 개의 명사가 전치사 'de'로 연결된 'N1 de N2'의 구조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어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요소로서 전치사 'de'가 사용되어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de 이하의 명사가 '소유'의 의미로 해석되거나 '부가적 상황'을 표현하는 수식어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많은 L2 학습자들이 쉽게 'N1 de N2'의 구조를 소유나 상황의 의미로 받아들여 한국어로 해석하고 스페인어로 작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살펴보자.

- 1) a. el jardín de Juan
b. el coche de Marta

- 2) a. el edificio de la esquina
b. el autobús de las 14:30
c. el hombre del traje gris
(Escandell-Vidal 1995, 39, 43)

(1)과 같은 경우는 N1과 N2의 관계를 소유로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N2를 소유주(possessor)로 해석하게 된다. 즉, (1a)는 '후안의 정원', (1b)는 '마르타의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다. (2)의 경우는 N2를 부가적 수식어로 해석하여 각각 (2a)를 '모퉁이에 있는 건물', (2b)를 '14시 30분에 출발/도착하는 버스', (2c)를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모두 'N1 de N2'의 구조를 통해 표현 가능하다는 점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페인어 명사구의 형성이 전치사 de를 사용하여 매우 단순하게 구성된다고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N1 de N2'의 구조가 이와 같은 단순한 소유나 수식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N1과 N2 사이에 주어-술어 관계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구문을 다루고자 한다. N1과 N2 사이에 주어-술어의 관계가 설정되는 명사구문은 다음과 같다.

- 3) a. el idiota del médico
 b. la tonta de la vecina
 c. el burro del alcalde
 d. una maravilla de ciudad
 e. un asco de croquetas
 f. un encanto de mujer

(3)의 ‘N1 de N2’구문에서 N1과 N2는 소유나 부가어의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3a)는 ‘바보 같은 의사’, (3b)는 ‘멍청한 이웃’, (3c)는 ‘멍청한 시장’의 의미이며, (3d)는 ‘멋진 도시’, (3e)는 ‘맛없는 크로켓’, (3f)는 ‘매력적인 여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단순한 소유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별히 스페인어의 명사구 ‘N1 de N2’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주어-술어 관계와 그 유형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구조적 특징을 상세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N1 de N2’ 구조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사구에 대한 의미, 구조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별히 (3)과 같은 명사구를 본고에서는 (1)과 같은 ‘소유 명사구(possessive nominals)’와는 구별하여 ‘품질 명사구(qualitative nominals, 이하 QN)’라 부르려고 한다. QN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스페인어 L2 학습자들의 간과하고 있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식하고 명사구의 다양한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명사구 구조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두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 내에서 주어-술어 관계가 이루어지는 ‘N1 de N2’의 구조는 스페인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독일어, 불어, 영어 등과 같은 여러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i) a. cet imbécile de garçon (French)
 ‘this imbecile of boy’
 b. deze idioot van een kerel (Dutch)
 ‘this idiot of a guy’
 c. that barge of a woman (English)

II. QN으로서의 'N1 de N2'구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

스페인어 L2학습자들이 품질 명사구로서의 'N1 de N2'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페인어 전공자 55명²⁾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N1 de N2' 구조가 포함된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N1과 N2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설문의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아래의 설문 내용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모두 'N1 de N2'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N2가 소유주로 해석되는 소유의 관계를 표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문 예문 (1)의 'El tonto de Juan'은 '후안의 바보'라는 해석이 이루어지는 구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구문은 '바보 같은 후안' 혹은 '바보인 후안'으로 해석되어 'Juan es un tonto.'를 QN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설문 예문 (3)과 같은 경우는 N1에 나타난 명사가 'gallina'로 일반적으로 많은 학습자들이 이 명사를 '암탉'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3)의 해석을 '후안의 암탉'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구문은 'Juan es un gallina.'를 QN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gallina'는 'Es una persona cobarde y tímida'를 표현하는 것으로

〈표 1〉 'N1 de N2' 구조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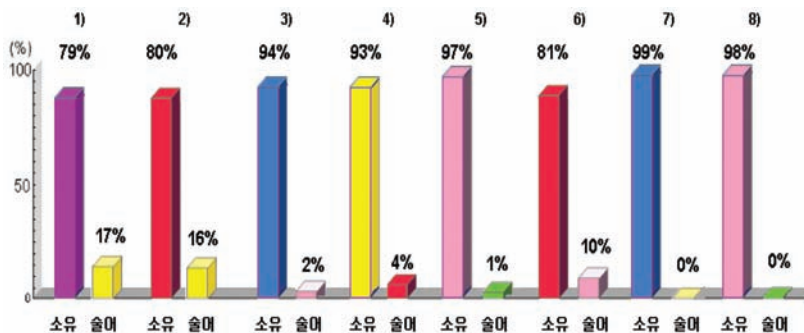
* 다음을 우리말로 해석하십시오.³⁾

1. El tonto de Juan no lo ayuda.
2. El idiota del vecino que he conocido vive cerca.
3. El gallina de Juan me lo ha dicho.
4. El desastre de Juan nunca se lava.
5. El ángel de tu mujer siempre me ayuda.
6. Aquí es una maravilla de ciudad.
7. El burro del alcalde no ha asistido.
8. Marta es una joya de mujer.

- 2) 문장의 해석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대학의 스페인어 전공자 2,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3) 설문의 'N1 de N2'의 QN구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바보 같은 후안; 2. 바보 같은 이웃; 3. 멍청한 후안; 4. 칠칠맞은 후안; 5. 천사 같은 너의 부인; 6. 멋진 도시; 7. 무식한 시장; 8. 귀한 여자

‘멍청하고 소심한 사람’을 나타낸다. 즉 N2의 특성을 N1이 표현하는 것으로 N1이 형용사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명사는 여성명사이지만 ‘la gallina’로 표현하지 않고 ‘el gallina’로 남성 정관사를 사용한다. 이는 N2인 Juan의 성과 일치하여 Juan의 술어로 N1이 기능하기 때문에 N1의 앞에 사용된 정관사는 ‘gallina’의 성이 아닌 N2의 성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3)이 ‘후안의 암탉’으로 소유의 관계를 표현하는 명사구는 ‘la gallina de Juan’으로 표현될 것이다. 즉, 본고에서 다루는 QN구문은 일반적인 명사구에서 두 명사가 de로 연결된 구문과는 의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 1>의 설문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각 항목에서 왼쪽이 ‘소유’로 해석한 경우로 오류에 해당하며, 오른쪽이 N1을 술어로 보아 올바른 해석을 한 경우이다. 아래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N1 de N2’의 구조를 소유 구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 (5), (7), (8)의 예문과 같이 일반명사의 의미로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명사가 N1에 나타난 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N1을 술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1), (2), (4), (6)의 경우에는 술어적 해석의 비율이 낮지만 조사되었다. 이는 (1)의 ‘tonto’나 (2)의 ‘idiota’의 경우는 그 형용사의 사용에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이를 소유 구문으로 해석했을 때 어색하다



<그림 1> ‘N1 de N2’ 구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4)의 ‘desastre’나 (6)의 ‘maravilla’는 명사구만 제시되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소유자구문으로 해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장 내에서의 해석에서 N1이 소유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술어적 해석을 한 경우가 일부 조사되었다고 생각된다. 위의 설문에서 학습자들 대부분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 교육에서 명사구 내에서 N1이 술어로서 기능하는 구문을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QN구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1의 술어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QN구문으로서의 ‘N1 de N2’ 구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스페인어 QN구문의 유형별 분석

‘N1 de N2’의 구조로 나타나는 스페인어 명사구 구문에서 N1과 N2사이에 ‘주어-술어’의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는 QN구문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구조에서 N1은 술어로 해석되고 N2는 주어로 해석되어 두 명사 사이에는 주술관계(predication)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QN구문은 명사구를 이끄는 관사의 사용, 구문을 이루고 있는 명사 중 핵심(nucleus)이 되는 명사의 특성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1 de N2’ 구문의 유형을 명사구를 이끄는 관사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N1의 앞에 사용된 관사가 정관사(definite article)인 경우와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인 경우에 따라 구조적 특징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형별 분류를 위해 부정관사가 이끄는 QN구문을 I-QN으로 부르고 정관사가 이끄는 QN구문을 D-Q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1. 부정관사가 이끄는 QN구문(I-QN)

부정관사가 이끄는 QN구문의 구조는 ‘부정관사 + 명사/형용사 + de + 무관사 명사’로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 N1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도출될 수 있다.⁴⁾

그럼 먼저 N1이 형용사인 경우를 I-QN의 첫 번째 유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문이 이에 해당한다.

- 4) a. un tonto de doctor
- b. un imbécil de abogado

의미적으로 (4)와 같은 구조의 명사구에서는 N1이 N2의 특성을 설명하여 N1은 평가(evaluative)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된다.⁵⁾ (4a)는 ‘의사로서 자질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4b)는 ‘변호사로서 똑똑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Es un tonto como doctor.’, ‘Es un imbécil como abogado.’로 표현할 수 있다. (4)와 같은 I-QN은 주로 특정 주어 x의 특성을 표현하는 한정어(attribute)로서 기능한다.

- 5) a. Juan es un tonto de doctor.
- b. Pedro es un imbécil de abogado.

(5a, b)와 같이 I-QN구문은 주어 ‘Juan’과 ‘Pedro’의 특성을 나타내는 한정어로 사용된다. N1에 나타난 ‘tonto, imbécil’은 N2를 주어로 하는 형용사 술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N1 de N2’ 구문을 이끄는 부정관사는 명사 N2에 성과 수

4) Di Tullio & Kornfeld(2005)는 *maravilla, joya, horror*와 같은 품질명사가 N1에 나타나는 QN구문은 한정적(attributive) 의미가 있는 구문으로 보았고, *tonto, bueno* 등의 형용사나 *burro, diablo, rata* 등의 일반명사가 N1에 나타나는 QN구문은 지시적(referential) 의미가 있는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N2의 주어에 대해 N1이 그 특성을 설명하는 한정어로 기능한다는 점을 나타내며, 두 번째 경우는 N2의 주어 자체와 N1의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즉, ‘un tonto de Juan’에서 un tonto는 Juan을 지시하는 지시적 의미의 구문으로 un tonto=Juan의 관계가 성립한다. 반면에 ‘una maravilla de ciudad’에서 una maravilla는 ciudad의 한정어이며 una maravilla≠ciudad의 관계를 이룬다.

5) I-QN에서 N1은 자질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지녀야 하며, 다음 (i)에서와 같은 일반 명사로는 이러한 구문을 만들 수 없다.

- (i) a. un médico de marido
- b. un oficinista de esta empresa
- c. un francés de pura cepa

(Suñer 1990, 315)

에 일치하며, N1을 형용사로 볼 때 이 역시 술어로서 주어 N2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N2에 여성의 명사가 나온다면 ‘una tonta de doctora, una imbécil de abogada’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I-QN구문이 한정어로 사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Di Tullio & Saab(2005)는 이 구문이 술어로만 사용된다고 보았지만, 실제로 I-QN은 한정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 6) a. Me ha presentado a un idiota de médico.
- b. Un idiota de médico me ha llamado.
- c. *Un imbécil de abogado lo vi ayer.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관사가 이끄는 QN구문이 (6a)에서는 목적어로, (6b)에서는 주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I-QN구문은 부정(indefinite)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6c)와 같이 문두로 이동하여 이미 언급되었던 특정적 요소, 즉 화제(topic) 요소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I-QN구문을 이끄는 관사는 항상 부정관사로 도출되며, N2 명사의 앞에도 관사나 소유사가 사용되지 못하고 무관사 명사로 도출되어야 한다.⁶⁾

- 7) a. *Un idiota del doctor
 - b. *Un imbécil de Juan
 - c. *Un tonto de marido de Teresa
 - d. *Un tonto de su vecino
- (Suñer 1990, 369, 374)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N2의 위치에는 특정한(specific) 요소가 도출되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N2의 특성이 N1 명사구 전체를 이끄는 관사로 연결되어 표출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⁷⁾

다음은 I-QN의 두 번째 유형으로 N1에 명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다

6) 주어 N2는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복수 명사는 현대 스페인어에서 드물다.

록 하자.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 8) a. Un asco de croquetas
 b. Una calamidad de marido
 c. Una maravilla de ciudad
 d. Un encanto de mujer
 (Suñer 1999, 552)

앞선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N2가 주어이고 그 특성을 N1이 표현하는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 즉, (8a)는 ‘크로켓이 맛없다’는 의미로 ‘Las croquetas son un asco’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8b)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의미로 ‘El marido es una calamidad.’을 표현하며, (8c)는 ‘멋진 도시’라는 의미로 ‘La ciudad es una maravilla.’로 표현할 수 있다. (8d)는 ‘매력적인 여자’라는 의미로 ‘La mujer es un encanto.’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N1의 명사는 주로 추상명사(abstract noun)로서 N2에 대한 비방이나 칭찬과 같은 평가의 표현을 한다. 그러나 이 유형은 N1에 형용사가 도출된 경우와는 달리, N1에 명사가 도출되어 명사구를 이끄는 부정관사가 N1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8a)의 N2가 여성 복수이지만 N1은 ‘asco’의 성과 수에 일치하여 남성 단수의 관사 ‘un’이 도출되어야 한다. (8b)와 (8d)의 경우도 N2인 ‘marido’나 ‘mujer’의 성과 수와 무관하게 N1인 ‘calamidad’, ‘encanto’에 일치하여 관사가 결정된다.

N1에 명사가 나타나는 I-QN구문도 한정어로서 특정 주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술어로 사용된다.

- 9) a. Manuel es una joya de hombre.
 b. José es un desastre de secretario.
 c. Es un tesoro de niño.

7) N1과 N2의 관사 사용의 일치를 Español-Echevarría(1997, 1998), Villalba(2007)는 한정성 일치 효과(definiteness agreement effect)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구문 역시 (10)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 10) a. Una maravilla de ciudad está en Corea.
- b. He visitado una maravilla de ciudad.
- c. He visto una pena de película.

N1에 명사가 도출된 I-QN구문 역시 형용사가 도출되었던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정관사가 명사구를 이끌고 있으며 이 구문에서 N2에 특정적인 명사가 나타나면 (11b, c)에서 보듯이 비문이 된다.

- 11) a. Una maravilla de marido
- b. *Una maravilla del marido
- c. *Una calamidad de Juan
- d. *Unas calamidades de maridos
- e. Un asco de sopa
- f. *Unos ascos de sopas

또한 (11d-f)에서 보듯이 N2 주어가 복수가 되어도 술어인 N1은 단수로 나타난다. 이는 N1 술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이라고 본다.⁸⁾

위에서 언급된 여러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구문이 형용사가 이끄는 구문과 구별되는 특징이 부정관사가 N1의 명사에 일치함으로써 관사를 포함한 완전한 명사가 N1이 되어 명사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명사구의 의미상의 핵심은 N1이 아닌 N2 주어라는 것을 (10)의 예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적으로 볼 때, (10a)의 주어는 ‘ciudad’이며, (10b)와 (10c)의 목적어는 ‘ciudad’과 ‘película’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N1에 독립된 명

8) Suñer(1990, 360)도 추상명사가 계사의 술어로 사용될 때 항상 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N2가 복수로 나타날 때 N1이 단수로 도출된다고 분석한다.

- (i) a. Estas flores son una belleza. (Suñer 1990, 360)
- b. Las calles son una maravilla. (www.tripadvisor.com)
- c. Estos chicles son un asco. (www.hoy.es-18-03-2009)

사가 도출되어도 N1과 N2 사이에는 주어-술어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N1은 N2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관사가 이끄는 QN구문(D-QN)

다음은 정관사가 이끄는 QN구문으로 ‘정관사 + 명사/형용사 + de + 정관사 + 명사’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 N1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도출될 수 있다. 주어 N2의 전체 대상(total object)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다. 의미적으로 N1과 N2 사이에 주어-술어관계가 형성되며, N2가 주어이며 N1이 N2의 술어로 해석된다. 따라서 N1에는 I-QN과 마찬가지로 자질을 나타내는 평가의 어휘가 나타난다. D-QN구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명사구를 이끄는 N1 앞의 관사가 정관사로 도출되며, N2 역시 이와 일치하여 특징적인 요소로서 도출된다는 점이다.

정관사가 명사구를 이끄는 D-QN구문도 역시 N1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유형과 명사가 나타나는 유형으로 세분하여 그 특징을 상세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구문이 N1에 형용사가 도출된 D-QN에 해당된다.

- 12) a. El tonto del decano
- b. El imbécil de Juan
- c. El loco del alcalde
- d. El bueno de Luis
- e. La lista de María

(12)에서 보듯이 D-QN의 내부에서 N2가 주어로, N1이 술어로 기능하여 두 명사가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12a)는 ‘el decano es tonto’의 해석이 이루어져, N2의 특성을 N1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N1에 나타나는 형용사는 항상 N2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 형용사 자체는 성과 수가 있는 요소가 아니며, N1은 독립된 명사가 아니라 주어에 일치해야 하는 술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N1에 나타난 형용사 ‘tonto, imbécil, loco, bueno, lista’는 N2의 술어적 요소로 기능할 뿐, 이 자체가 명사로 사용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 예문에서 그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 13) a. *La tonta del decano
 b. La tonta de la vecina
 c. *El tonto de tu hermana
 d. Los tontos de los vecinos.
 e. Las tontas de las vecinas
 f. *El imbécil de Marta
 g. *La imbécil de Juan
 h. La imbécil de tu prima

N1에서 도출된 형용사의 성과 수, N1앞의 정관사는 모두 N2의 성과 수에 일치하여야 하며 이 명사구를 이끄는 핵심 요소는 N1이 아닌 N2로서 명사구를 이끄는 정관사는 N2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QN에서 N1에 위치한 형용사는 다음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 'muy'의 수식을 허용한다.

- 14) a. El muy imbécil de Juan
 b. La muy torpe de María
 c. El muy idiota de tu primo

이는 N1이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명사구 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사구를 이끄는 요소가 N2 주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명사구 내에서 N2가 주어로 해석되며 명사구의 구조적 핵심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 증명된다.

- 15) a. *El tonto de Juan_i no lo_i peina. (Suñer, 1999, 553)
 b. Al loco de Pedro_i no lo_i invitaron sus compañeros de clase.

(15a)에서 한 문장 내에서 직접목적대명사 'lo'는 Juan과 동지표되어 동일한 사람을 지시하면 이는 비문이 된다. 이는 D-QN구문에서 표현하는 것은 tonto가 아닌 Juan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5b)와 같이 문두로 직

접목적어 ‘al loco de Pedro’가 이동하여 화제 요소로서 사용된 경우, 이에 해당 하는 직접목적대명사 ‘lo’를 동사 앞에 사용하여 중복하게 되는데 이 대명사 ‘lo’가 가리키는 것은 ‘loco’가 아니라 ‘Pedro’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N1 de N2’의 구조에서 의미적 핵심요소는 N2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관사가 이끄는 명사구에서 N1에 나타나는 요소가 명사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유형은 ‘정관사+ 명사+ de+ 정관사+ 명사’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때 N1에 나타나는 명사는 사람의 특성을 표현하는 양성명사 (epicene noun)로서 N2의 술어로서 사용된다. 즉, N1은 N2 주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의 변화 없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명사이다.

- 16) a. El gallina de Juan
- b. El rata de tu jefe
- c. La rata de tu vecina
- d. El pelota de González
- e. El bestia de Juárez
- f. El burro del alcalde
- g. El asno de Sancho

N1은 술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N2의 특성을 표현한다. (16)에서 첫 번째 정관사는 명사 N1과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N1은 형태적으로 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채, N2의 술어로 기능하는 요소로서 명사구를 이끄는 정관사는 주어인 N2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6)의 예를 바꾸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7) a. Juan es un gallina.
- b. Tu jefe es un rata.
- c. Tu vecina es una rata.
- d. González es un pelota.
- e. Juárez es un bestia.
- f. El alcalde es un burro.
- g. Sancho es un asno.

(16a)의 ‘gallina’는 ‘비겁한 사람’의 의미로 Juan의 술어이다. (16b, c)의 ‘rata’는 ‘구두쇠’를 의미하는 명사로 ‘tu jefe’와 ‘tu vecina’의 술어로 기능한다. ‘rata’ 자체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으며 관사로 주어의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게 된다. (16d)의 ‘pelota’는 ‘아부를 잘 하는 사람’의 의미이며, (16e)의 ‘bestia’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각각 N2 주어의 술어로 기능한다. (16f)의 ‘burro’와 ‘asno’는 ‘무식한 사람, 아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명사로서 N2의 술어가 된다.⁹⁾ (17)의 예문을 통해 보듯이, N1에 사용된 명사는 성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16)에서 N2의 성과 수에 따라 구문을 이끄는 정관사가 결정된다. 즉, D-QN구문에 사용된 N1 술어는 일종의 형용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¹⁰⁾ 이는 앞서 제시된 N1에 형용사가 사용된 (12)의 구문과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16)의 구문들도 N1을 부사 ‘muy’가 수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 18) a. El *muy* gallina de Juan
 b. El *muy* bestia de Juárez
 c. El *muy* burro del alcalde
 d. El *muy* asno de Sancho
 e. El *muy* rata me dejó sin un quinto.
 (Casillas Martínez 2003, 4; Maldonado González 1999, 1541)

(18)을 통해 N1을 수식하는 부사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1은 형용사적 특성을 갖는 명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1이 명사로 도출된 D-QN구문에서도 명사구 내에서 N2가 역시

9) N1의 ‘burro’, ‘asno’는 여성형 명사로 ‘burra’, ‘asna’가 사람을 평가하는 의미의 명사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N2 주어가 여성인 경우 여성형으로 일치한다.
 (i) a. El burro del alcalde (ii) a. El asno de tu hermano
 b. La burra de tu amiga b. La asna de tu hija
 c. *La burro de tu amiga c. *La asno de tu hija
 d. *El burro de tu amiga d. *El asno de tu hija

10) Casillas Martínez(2003)는 성의 변화가 없는 N1을 명사파생 형용사(denominal adjective)라고 언급한다.

주어로 해석되며 구문의 의미, 구조적 핵심이 된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증명된다.

- 19) a. El rata de tu jefe_i le compró un coche a su_i hermana.
 b. El gallina de Juan_i me ha hablado de sí mismo_i.
 c. El pelota de González_i ya ha llegado a su_i casa.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N1 de N2’의 구조에서 N2가 명사구의 중심이 되며 N1은 N2를 수식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19a)에서 모문의 동사 술어 ‘compró’의 주어는 ‘tu jefe’가 되며 간접목적어에 사용된 소유형용사 ‘su’가 가리키는 대상 역시 ‘tu jefe’가 된다. N1의 ‘rata’는 단지 ‘tu jefe’를 수식하는 술어일 뿐이다. (19b)에서도 ‘sí mismo’가 가리키는 것은 ‘Juan’이며, (19c)에서 ‘su’가 가리키는 것은 ‘González’이다. 따라서 N1에 형용사가 도출된 (12)와 명사가 도출된 (16)은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분석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관사가 이끄는 D-QN구문의 세 번째 유형으로 N1에 일반명사가 나오는 구문을 들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 20) a. El ángel de tu mujer
 b. La perla de tu hermano
 c. El tesoro de tu mujer
 d. El desastre de Juan
 e. El diablo de la vecina
 f. La rata de tu jefe

앞서 언급된 (16)구문에서의 N1이 형용사적 기능을 한다면, (20)에 제시된 N1 명사는 명사구를 이끄는 관사와 함께 독립된 명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역시 N1은 주어인 N2의 술어로서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20a)는 ‘Tu mujer es (como) un ángel.’로 ‘너의 부인은 착한 사람이다.’의 의미가 된다. (20b)는 ‘Tu hermano es (como) una perla.’로 표현할 수 있으며, ‘너의 동생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의 의미로 해석된다.¹¹⁾ (20c-f)에서 나타난

N1 ‘tesoro, desastre, diablo, rata’ 모두 사람을 평가하는 의미의 명사로서 각각 ‘귀한 사람, 운 없는 사람, 장난이 심한 혹은 사악한 사람, 하찮은 사람¹²⁾’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유형의 특징은 명사구를 이끄는 관사가 N1과 일치하여 N1이 독립적인 명사를 형성함으로써 앞선 정관사가 이끄는 두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때 명사구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N2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1) a. El ángel de tu mujer siempre me ayuda.
 b. El desastre de Juan, nunca se, lava.

(21a, b)에서 문장의 주어는 명사구를 이루고 있는 N1과 N2 중에서 N2인 ‘tu mujer’와 ‘Juan’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21)의 명사구 구문들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22) a. Tu mujer es un ángel.
 b. Juan es un desastre.

11) ‘ángel’은 ‘천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persona que tiene las características que se consideran propias de estos espíritus(Maldonado González, 1999)’의 의미로 사용되어 주어 ‘tu mujer’의 술어로서 기능하며 남성 명사로서 사용된 것이다. ‘perla’는 일반명사로서의 대표적 의미의 ‘진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lo que resulta muy apreciado por sus cualidades(Maldonado González, 1999)’의 의미로 ‘tu hermano’의 술어로 사용된 것이다.

(i) a. Esta mujer es un ángel, siempre pendiente de los demás.
 b. Esta chica es una perla porque sabe de todo.
 (Maldonado González 1999, 108, 1401)

12) 명사 ‘rata’의 경우는 양성 명사인 경우에는 ‘구두쇠’의 의미를 갖지만 일반 명사로서 여성인 명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persona despreciable’를 의미하여 ‘하찮은 사람’을 의미한다(cf. Español-Echevarría 1998). 두 구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i) a. El rata de Juan
 b. La rata de Marta
 (ii) a. La rata de tu hermano
 b. La rata de tu hermana

(i)과 같이 N2의 성에 따라 구문을 이끄는 관사가 일치하면 이는 N1이 양성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N1이 구두쇠를 의미하지만, (ii)와 같이 구문을 이끄는 관사가 여성형으로 N1인 rata에 일치하면 이는 ‘하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ib)나 (iib)와 같이 N2 주어는 여성인 경우에는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20)의 유형에서도 N1은 술어로 N2는 주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구문을 이끄는 의미, 구조적 핵심은 역시 N2이다.

IV. 스페인어 QN구문의 의미 · 구조적 특징

앞서 III장에서 ‘N1 de N2’의 구조로 이루어진 스페인어 QN구문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5가지의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QN구문의 유형별 특징

유형	예	주어(N2)-술어(N1)관계	관사의 일치	의미 · 구조적 핵심
A) I-QN	Un tonto de médico	√	N2	N2
B) I-QN	Una maravilla de ciudad	√	N1	N2
C) D-QN	El tonto de Juan	√	N2	N2
D) D-QN	El gallina de tu hermano	√	N2	N2
E) D-QN	El tesoro de tu mujer	√	N1	N2

그럼 QN구문의 의미 ·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¹³⁾ QN구문은 공통적으로 N1이 술어로 기능하고 있고 N2가 그 주어로서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생략 구문에서도 일반적인 소유 관계의 ‘N1 de N2’의 구조와는 구별된다. QN구문에서 명사구의 첫 번째 명사는 술어에 해당하고 이 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 23) a. El burro de Juan y el burro de Luis rebuznaron toda la noche.
 b. *El burro de Juan y el burro de Luis pusieron un clavo en la silla del profesor.
 c. *El ángel de tu mujer y el ángel de tu hija siempre me ayudan.
 d. *Una porquería de departamento y una porquería de casa
 (Suñer 1990, 399; Di Tullio & Saab 2005, 8)

13) 본고에서는 구조적 특징을 도출에 대한 통사적 분석이 아닌,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설명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을 밝혀둔다.

(23a)에서 명사구 'el burro de Juan'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때는 정관사를 사용하여 'el de Luis'로 'burro'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N1이 술어로 사용된 (23b-d)의 경우, 관사는 생략된 N1을 대신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관사를 남기고 술어가 생략된 구문은 모두 비문이 되는 것이다. 즉, QN구문에서는 N1이 N2의 소유물이 아닌 술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⁴⁾

부정관사가 이끄는 I-QN유형은 N2에도 관사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 유형은 주로 술어로 사용되어 특정 주어의 특성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특정성이 없는 요소로 D-QN과 의미적으로 한정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정관사가 이끄는 D-QN구문은 N2에도 정관사나 소유형용사가 동반된 특정적 요소가 도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화제 요소가 도출된 구문에서 나타나는 문법성의 차이로 알 수 있다.

- 24) a. *Un idiota de decano al que vi hoy.
 b. Al idiota del decano lo vi hoy.
 (González-Rivera 2011, 282)

(24a)의 I-QN구문은 이미 언급된 화제 요소로 문두에 나타나는 것이 비문인 반면, (24b)의 D-QN구문은 특정적 요소로서 사용되는 것이 허가된다.

본고에서는 I-QN구문과 D-QN구문 모두 N1은 N2의 술어로서 기능한다고 분석하였다. I-QN구문은 주로 특정 주어의 술어로서 그 특징을 서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때 의미적으로 부정관사가 이끄는 이 구문에서는 감탄적(exclamative) 어조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¹⁵⁾ 즉, '얼마나 (N1)한지!'의 뉘앙스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면, D-QN구문에는 그런 수량적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술어가 N1에 나타남으로서 술어에 대한 강조(emphasis)의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본다(Leborans 2002: 394; Villalba 2010: 9). 그런데 이 두 구문의 술

14) 명사구 내 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Saab(2010)을 참고할 수 있다.

어 N1에 대한 수식에 있어 다음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구문에 차이가 나타난다.

- 25) a. *Un muy tonto de hombre
 b. *Una muy maravilla de ciudad
 c. El muy tonto de Juan
 d. El muy gallina de Juan

부정관사가 이끌고 있는 (25a, b)에서는 N1술어를 부사 ‘muy’가 수식하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일부 분석에서는 (25a, b)와 같이 부정관사가 이끄는 구문의 N1을 부사가 수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un tonto, una maravilla’가 독립된 명사구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5a)의 N1의 형용사를 muy가 수식할 수 없는 것은 의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Suñer(1990)는 (25a)와 같은 유형에서는 부정관사가 의미적으로 수량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Di Tullio & Saab(2005)는 (25b)와 같은 유형에서는 의미적으로 수량에 있어 최상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25a, b)에서 부사 ‘muy’가 수식하는 것이 비문인 것은 N1이 술어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¹⁶⁾

또한 본고에서는 I-QN과 D-QN 모두 N1이 형용사인 경우(<표 2>-유형 A, C)에는 관사를 주어 N2에 따라 일치한다고 분석하였고 N1이 형용사처럼 기능하는 양성명사의 경우(<표 2>-유형 D)에도 N2에 따라 관사를 일치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N1이 일반명사인 경우(<표 2>-유형 B, E)에는 N1이 자신의 관사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사의 일치가 QN구문의 의미적 핵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N1에 일

15) I-QN에서는 ¡Qué asco da!, ¡Qué idiota es!, ¡Qué horror!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16) (25b)의 경우는 <표 2>의 유형 (E)와 마찬가지로 N1이 관사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명사구를 형성하며, ‘관사+명사’ 전체가 술어로서 기능하는 요소로서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치하여 관사를 사용한 유형 (B)와 유형 (E)의 경우, 명사구의 의미적 핵심은 모두 N2인 주어가 된다. 다음 (26)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26) a. Una pena de película ha ganado el premio.
- b. Una maravilla de país está limpio.
- c. El tesoro de tu mujer está contenta.
- d. El ángel de tu mujer no sé si estará dispuesta. (Suñer 1999, 553)

의미, 구조적으로 (26)의 예문들은 모두 N2가 핵심으로 기능한다. 이는 I-QN과 D-QN에서 모두 동일하다. 즉, 예를 들어, (26a)에서 N2인 'película'가 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적절한 해석이 이루어지며, 'pena'가 'ha ganado'의 주어로 해석될 수는 없다. (26d)에서도 'estará dispuesta'의 주어는 'ángel'이 아닌 'tu mujer'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I-QN구문으로 유형 (B)에 해당하는 (26b)에서 형용사 'limpio'가 N2인 'país'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D-QN구문으로 유형 (E)에 해당하는 (26c, d)에서 형용사 'contenta'와 'dispuesta'가 모두 여성으로 N2에 일치하는 경험적 증거를 통해 명사구의 구조적 핵심이 N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스페인어의 'N1 de N2'구조에서 N1이 술어로 N2가 주어로 기능하여 명사구 내부에서 주어-술어 관계가 형성되는 품질 명사구 구문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N1 de N2'의 구조를 단지 '소유'나 '부가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조사하였고, 명사구 내부에서 주어-술어 관계가 형성되는 구문에 대해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품질 명사구 구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스페인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미·구조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기존의 품질 명사구 구문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 통사론에 치우쳐 있어 스페인어 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또한 실제로 QN구문의 사용에 있어 QN구문 내 요소들 간의 일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품질 명사 구문의 구조를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육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품질 명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의미 해석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Casillas Martínez, Luis(2003), "Gender Mismatches in Spanish and French N1/A de N2 Affective Constructions: Index agreement vs. Morphosyntactic Concord, ed. J.-B. Kim, and S. Wechsler," *The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PSG*, Stanford: CSLI, pp. 1-17.
- Di Tullio, Angela & Kornfeld, Laura(2005), "Relaciones de concordancia entre dos nombres en el interior del SN," *Proceedings of the XIV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de Lingüística y Filología de América Latina(ALFAL)*, Universidad Autónoma de Nuevo León, http://www.mundoalfal.org/cdcongreso/cd/analisis_estructuras_linguisticas/ditrulliok.html.
- Di Tullio, Angela & Saab, Andrés(2005), "Dos clases de epítetos en el español: sus propiedades referenciales y distribución sintáctica," *Proceedings of the XIV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de Lingüística y Filología de América Latina(ALFAL)*, Universidad Autónoma de Nueva León. http://www.mundoalfal.org/cdcongreso/cd/analisis_estructuras_lin_guisticas/ditrullios.html.
- Escandell-Vidal, M. Victoria(1995), *Los complementos del nombre*, Madrid: Arco/Libros S.A.
- Español-Echevarría, Manuel(1997), "Inalienable possession in copulative contexts and the DP-structure," *Lingua* 101, pp. 211-244.
- _____(1998), "N/A of a N DP's: Predicate raising and subject licensing," A. Schwegler, B. Tranel, & M. Uribe-Etxebarria(eds.), *Romance Linguistics: Theoretical Perspectives*, Amsterdam: John Benjamins, pp. 67-80.
- González-Rivera, Melvin(2011),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Spanish Attributive

- Qualitative Binominal Constructions,” Luis A. Ortiz-López(ed.), *Selected Proceedings of the 13th Hispanic Linguistics Symposium*, Somerville: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pp. 275-285.
- Maldonado González, Concepción(1999), *Clave: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actual*, Madrid: SM
- Saab, Andrés(2010), “(Im)possible deletions in the Spanish DP,” *Iberia*, vol 2.2, pp. 45-83.
- Suñer, Avelina(1990), “La predicación secundaria en españo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_____(1999), “La aposición y otras relaciones de predicación en el sintagma nominal,”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523-564.
- Villalba, Xavier(2007), “True and spurious articles in Germanic and Romance,” *Cuadernos de Lingüística* 14, pp. 121-134.
- _____(2010), “La inversión de predicado y la estructura informativa en el SD,” *Seminario de Lingüística Teórica*, CCHS-CSIC, Madrid, pp. 1-18.
- www.tripadvisor.com
- www.hoy.es

유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patricia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년 3월 3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9일

A Study of Spanish 'N1 de N2' Construction Focusing on the Subject(N2)-Predicate(N1) Relation

Eun-jung Yo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 Eun-jung(2013), A Study of Spanish 'N1 de N2' Construction Focusing on the Subject(N2)-Predicate(N1) Relation.

244

245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Spanish 'N1 de N2' construction in which N1 that functions as a predicate and N2 that functions as a subject establish a predication relationship. I will call this structure qualitative nominal construction. Many Korean students learning Spanish do not recognize the predication relation in 'N1 de N2'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So I will analyze qualitative nominal construction by types. First, it will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y definite article and indefinite article that appear before N1. These two groups will be subdivided by the word class of N1 such as noun and adjective. I attempt to analyze and specify the properties of qualitative nominal construction based on Spanish data in ways that students learning Spanish can easily understand.

Key words 'N1 de N2' Construction, Qualitative nominals, Predication